

시사 잡지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표현의 번역 전략: 영한 병렬 코퍼스에 기반한 분석*

이승아** · 배지연***

(이화여대)

1. 서론

은유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에서는 은유란 미적, 수사적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언어 현상으로, 셰익스피어와 같은 위대한 작가 혹은 처칠 같은 달변가처럼 특별한 재능을 지닌 사람들만이 “은유의 거장”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Kövecses 2002: vii).

은유는 셰익스피어가 “온 세계는 하나의 무대이다”라고 쓴 것처럼, 어떤 미적·수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 은유란 낱말의 의식적이고 고의적인 사용이며,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 이 논문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

**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제1저자 및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과정(제2저자)

능력을 지녀야하며 잘 사용해야 한다. 위대한 시인이나 웅변가만이, 이를 테면, 셰익스피어와 처칠만이 은유의 거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효과에 대하여, “지금까지 가장 위대한 것은 은유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이다. 이것만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그것은 천재의 표시이다”라고 진술한다. (이정화 외 2003: x)

[M]etaphor is used for some artistic and rhetorical purpose, such as when Shakespeare writes “all the world’s a *stage*.” [. . . M]etaphor is a conscious and deliberate use of words, and you must have a special talent to be able to do it and do it well. Only great poets or eloquent speakers, such as, say, Shakespeare and Churchill, can be its masters. For instance, Aristotle makes the following statement to this effect: “The greatest thing by far is to have command of metaphor. This alone cannot be imparted by another; it is the mark of genius.” (Kövecses 2002: vii-viii)

그러나 인지언어학의 발달과 함께 은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등장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개념적 은유 이론이다. 이 접근법에 의하면, 은유란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적 현상이며, 개념적 은유는 다음과 같이 정의내릴 수 있다.

하나의 개념적 영역이 다른 개념적 영역으로 이해될 때, 우리는 개념적 은유를 가진다. 이러한 이해는 이 두 영역 사이에서의 일련의 체계적 대응 혹은 사상을 깨달음으로써 이루어진다. 개념적 은유는 A와 B가 다른 개념적 영역을 지시할 때, A는 B이다 혹은 B로써 A라는 공식에 의해 주어진다. [필자 강조] (이정화 외 2003: 434)

When one conceptual domain is understood in terms of another conceptual domain, we have a conceptual metaphor. This understanding is achieved by seeing a set of systematic correspondences, or mappings, between the two domains. Conceptual metaphors can be given by means of the formula A IS B or A AS B, where A and B indicate different conceptual domains. [emphasis added] (Kövecses 2002: 248)

개념적 은유 이론에서 은유는 보통 사람들도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

는 것이며, 문학 작품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특별한 장치가 아니다.

은유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은유의 번역이 문학 텍스트에서만 아니라 비문학 텍스트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문학 텍스트 중의 하나인 시사 잡지 텍스트에서 개념적 은유 표현이 어떻게 번역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Newsweek*지에 실린 영어 기사와 『뉴스위크 한국판』에 실린 해당 기사의 한국어 번역을 토대로 영한 병렬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시사 잡지 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국가·정부, 기업, 경제’의 개념을 중심으로 개념적 은유 표현의 영한 번역 전략을 고찰하는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개념적 은유

은유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레이코프와 존슨(Lakoff & Johnson 1980: 6)에 따르면, 은유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 즉 낱말들의 문제가 아니”며, “인간의 사고 과정의 대부분이 은유적”(노양진·나익주 1995: 24)이다. 즉, “인간의 개념 체계[는] 은유적으로 구성되고 규정된다”(노양진·나익주 1995: 24).

개념적 은유는 ‘x는 y다’라는 방식으로 표현되며, 여기서 x는 목표 영역(target domain), y는 근원 영역(source domain)이라고 부른다. 즉, 목표 영역은 우리가 이해하고자 하는 개념 영역(conceptual domain)으로 추상적인 성격을 띤다. 한편, 근원 영역은 목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 영역으로 구체적인 성격을 띤다.

예를 들면, 다음 (1)과 같이 영어에서 일상적으로 아이디어의 개념을 음식의 개념에 빗대어 이해하고 있다.¹⁾

1) 인지언어학에서 개념적 은유는 작은 대문자로, 은유적 표현은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것이 관례이다(Kövecses 2010: 6). 본고에서는 앞으로 개념적 은유, 목표 영역, 근원 영역을 나타낼 때, 영어의 경우 일반 대문자로 표기하고 한글의 경우 고딕체를 사용

(1) IDEAS ARE FOOD

아이디어는 음식

a. All this paper has in it are raw facts, half-baked ideas, and warmed-over theories.

이 논문에는 익히지 않은 미숙한 사실들, 반쯤 구운 아이디어들, 그리고 재탕한 이론들만 들어 있다.

b. There are too many facts here for me to digest them all.

여기에는 내가 그 모든 것을 소화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실들이 있다.

c. I just can't swallow that claim.

나는 그 주장을 그대로 삼킬 수가 없다.

d. Let me stew over that for a while.

그것에 대해 당분간 마음을 졸여 보겠소.

e. That's food for thought.

그것은 사고의 양식이다.

f. She devoured the book.

그녀는 그 책을 게걸스럽게 탐독했다.

g. Let's let that idea simmer on the back burner for a while.

그 아이디어가 당분간 뒤 버너에서 뭉근히 끓게 하자.

(Lakoff & Johnson 1980: 46-47, Kövecses 2002: 5, 이정화 외 2003: 6)

위의 예에서 보듯이, 아이디어는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다. 가령 (1a)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는 ‘조리되지 않은 날 음식’ 혹은 ‘설구운 음식’으로 나타나며, (1c)에서는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을 ‘삼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음식이라는 구체적 개념의 근원 영역을 통해 아이디어와 같은 추상적 개념의 목표 영역을 이해하려는 것을 개념적 은유라고 한다.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시간은 돈(TIME IS MONEY)이라는 개념적 은유가 현대 영어에서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다.²⁾

하기로 한다. 그리고 은유적 표현에는 영어, 한글 모두 밑줄을 긋기로 한다.

2) 개념적 은유를 ‘x는 y다’로 정의한다면, 이 정의는 현재 문학에서 정의하는 은유와 같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구태여 개념적 은유라는 말을 써야할 지에 대해 익명의 논평가가 의문을 제기하였다. 개념적 은유와 문학에서 정의하는 은유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가령 김동명의 시에 나오는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은유는 단발성에 그치지

(2) TIME IS MONEY

시간은 돈

a. You're wasting my time.

너는 나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b. I don't have the time to give you.

나는 너에게 내줄 시간이 없다.

c. That flat tire cost me an hour.

저 터진 타이어 때문에 한 시간이 걸렸다.

d. I've invested a lot of time in her.

나는 그녀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Lakoff & Johson 1980: 8, 노양진 · 나익주 1995: 26)

2.1.1 추상적 복합 체계 은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비문학 텍스트 중의 하나인 시사 잡지 텍스트에서 개념적 은유 표현이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시사 잡지 텍스트의 성격상 개념적 은유의 여러 종류 중에서 특히 추상적 복합 체계 은유(abstract complex system metaphor)가 많이 나타나므로 본 논문에서는 추상적 복합 체계 은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시사 잡지 텍스트에 자주 등장하는 개념으로 ‘국가· 정부, 기업, 경제’를 들 수 있는데, 커베체쉬(Kövecses 2002)에 의하면 이 개념들은 ‘추상적 복합 체계 (abstract complex system)’라고 통칭할 수 있다. 추상적 복합 체계에 속하는 것들을 나열하면 (3)과 같다.

(3) society, political systems, government, worldview, theory, economic systems, social organizations, career

사회, 정치 체계, 정부, 세계관, 이론, 경제 체계, 사회 조직, 경력

(Kövecses 2010: 155)

만, 아이디어는 음식, 시간은 돈 등의 개념적 은유는 (1)-(2)에 나오는 예문에서 보듯이 단발성이 아니라 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개념적 은유의 경우에는 서론의 인용문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x라는 목표 영역과 y라는 근원 영역 간에 체계적 대응 관계가 존재한다.

커베체쉬는 사회, 국가, 정부, 기업, 경제 등 언뜻 이질적으로 보이는 목표 영역들이 동일한 근원 영역에 사상(mapping)되어 개념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에 주목하여, 이러한 목표 영역들을 추상적 복합 체계라는 하나의 목표 영역으로 통합한 것이다.

추상적 복합 체계는 대체로 (4)의 네 가지 은유로 이해된다고 보았으며, 각 은유에 해당하는 실제 영어 표현은 (5)-(8)과 같다.

(4) a.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THE HUMAN BODY

추상적 복합 체계는 인간 신체

b.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BUILDING

추상적 복합 체계는 건물

c.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MACHINE

추상적 복합 체계는 기계

d.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PLANT

추상적 복합 체계는 식물

(Kövecses 2002: 133, 이정화 외 2003: 238)

(5)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THE HUMAN BODY

추상적 복합 체계는 인간 신체

a. Politicians are being blamed for all the ills of society. [SOCIETY]

정치가는 사회의 병으로 비난받고 있다. [사회]

b. Few of them have the qualifications or experience to put an ailing company back on its feet. [COMPANY]

그들 중에서 병든 회사를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자격이나 경험을 지닌 사람은 거의 없다. [회사]

c. Observers here believe that the greatest difficulty before him is the ailing economy of the country. [ECONOMY]

이곳의 관측통들은 그 앞에 놓인 가장 큰 어려움이 그 국가의 병든 경제 상황이라고 믿는다. [경제]

d. The tour is the first visit to the country by a Jewish head of state. [POLITICAL SYSTEM]

그 여행은 유대인 국가 우두머리가 그 나라를 첫 번째로 방문하는

것이다. [정체 체계]

- e. To some critics, the administration's troubles are symptomatic of something deeper. [GOVERNMENT]

몇몇의 비평가들에게 그 행정기관의 골칫거리는 더 깊은 어떤 것의 징후이다. [정부]

(Kövecses 2002: 129-130, 이정화 외 2003: 228-229)

(6)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BUILDING

추상적 복합 체계는 건물

- a. Ten years ago, he and a partner set up on their own and built up a successful fashion company.

십 년 전에 그와 동료는 자신들의 회사를 설립하고 성공적인 패션 회사를 세웠다.

- b. With its economy in ruins, it can't afford to involve itself in military action.

경제적 파멸로 인하여, 그 나라는 스스로 군사 행동에는 관여할 여유가 없다.

- c. There is no painless way to get inflation down. We now have an excellent foundation on which to build.

통화 팽창을 완화시키는 데 고통이 없는 길은 없다. 우리는 지금 그 위에 쌓을 수 있는 탁월한 토대를 가지고 있다.

(Kövecses 2002: 130-131, 이정화 외 2003: 230-231)

(7)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MACHINE

추상적 복합 체계는 기계

- a. The machinery of democracy could be created quickly, but its spirit was just as important.

민주주의라는 기계는 빨리 창조될 수 있지만 그것의 정신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 b. The National Party is edging toward agreement on the timing and mechanics of an election.

국민당은 선거 시기 결정과 선거 역학에 대하여 동의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 c. The media are important to a healthy, well-functioning economy; they are a commercial activity that oils the wheels of the economy. 매체는 건강하고 잘 돌아가는 경제에 중요하다. 매체는 경제라는 바퀴에 기름칠하는 상업적인 활동이다.

(Kövecses 2002: 132, 이정화 외 2003: 233, 236)

(8)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PLANT

추상적 복합 체계는 식물

- a. ... a local branch of this organization
... 이 조직의 지사
- b. They selectively pruned the workforce.
그들은 노동력을 선택적으로 잘라냈다.

(Kövecses 2002: 122, 이정화 2003: 214)

2.1.2 한국어의 개념적 은유

개념적 은유는 언어 보편적 현상으로 한국어에서도 추상적 개념을 은유라는 기제를 통하여 이해하고 있다. 다음 (9)는 한국어에 나타난 아이디어의 개념화 양상이다.

(9) 아이디어는 음식

- a. 내가 준 아이디어를 그가 꿀꺽 삼켜버렸다. (박영순 2000: 141)
- b. 아직 우리에게는 그만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소화해낼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겨레21』 제 218호, 1998.7.30, 「정보통신 바로보기/컴퓨터가 만드는 미래영화」)
- c. 경영자들은 늘 새로운 사업 기회, 아니면 기존의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혁신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아이디어에 목말라 있다.
(『한국경제 매거진』 제 790호, 2011.1.26, 「기발한 아이디어는 돈을 만든다」)
- d. 선점한 정보를 어떻게 요리하는가에 따라 성패는 갈라진다.
(『이지경제』, 2010.9.27, 「선(先) 투자는 먹을 것이 많다」)

2.1절에서 살펴본 (1)과 위의 (9)에서 알 수 있듯이, 영어와 한국어는 서로 다른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개념적 은유가 존재한다. 이처럼 여러 문화에 걸쳐서 어떤 목표 영역을 비슷하게 개념화하고 있는 은유를 준보편적(near-universal) 은유라고 한다(Kövecses 2010: 197).³⁾

2.2 선행 연구

최근 번역학에서도 개념적 은유 이론에 입각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김순영(2008)은 한영 문학 번역 텍스트(한국어로 쓰인 네 편의 단편소설과 그 영역본)를 통해 감정 은유 중 ‘슬픔’과 ‘화’의 표현이 어떻게 은유적으로 개념화되는지 고찰하였다. 김순영(2008: 22)의 연구 결과는 (10)의 세 가지 번역 양상으로 요약할 수 있다.

- (10) a. 추상적인 목표 영역의 개념이 ST와 TT에서 동일한 근원 영역에 사상되어 은유적으로 개념화되는 경우로, 이 방식의 번역에서는 감정 은유의 의미뿐만 아니라 ST와 TT에서 동일한 은유적 이미지가 생성된다.
- b. 추상적인 목표 영역의 개념이 ST와 TT에서 서로 다른 근원 영역에 사상되어 은유적으로 개념화되는 경우로, ST와 TT에서 생성되는 은유적 이미지는 동일하지 않다.
- c. ST에서는 추상적인 목표 영역의 개념을 구체적인 근원 영역에 사상하여 은유적 개념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TT에서는 근원 영역의 설정 없이 일반화된 표현으로 번역하는 경우로, 감정 은유의 이미지가 발생하는 ST와 달리 TT에서는 은유적 이미지가 생성되지 않는다.

한편 신진원 · 박기성(2011)은 *If It's Raining in Brazil, Buy Starbucks*라는 책과 한국어 번역본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를 바탕으로 경제 텍스트상의 은유 표현의 영한 번역 사례를 연구하였다. 아울러 분석 자료에 한국어 비번역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를 포함시켜 TT에 나타난 번

3) 보편적(혹은 준보편적) 은유 외에 언어 특수적인(language-specific) 개념적 은유도 존재한다.

역문의 특징을 살폈다(신진원·박기성 2011: 137). 분석 결과는 “일치, 대체, 외연화, 생략, 함축화, 추가”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였는데, 이 중 일치 전략과 외연화 전략이 대부분의 은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신진원·박기성 2011: 137, 151).⁴⁾

본 연구에서는 김순영(2008)과 달리 비문학 텍스트를 다루고, 신진원·박기성(2011)과 달리 경제 외의 정치 텍스트 등도 다룬다. 또한 신진원·박기성(2011)에서 경제 서적을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시사 잡지 텍스트를 선택하였다.

3. 연구방법

1993년에 베이커(Baker)가 코퍼스기반 번역학을 제창한 이래 코퍼스는 번역학 분야의 새로운 연구 도구로 각광받고 있다. 번역학을 위한 코퍼스의 유형은 학자마다 사용하는 용어 및 개념이 약간 다른데(Altenberg & Granger 2002: 7-8), 본 논문에서는 아래 (11)-(12)의 정의를 받아들여기로 하겠다.⁵⁾

4) 일치 전략과 외연화 전략은 각각 다음과 같다(신진원·박기성 2011: 138-139).

- (i) 일치
 - a. ST의 은유를 TT에서 그대로 유지시킴
 - b. ST와 같은 개념적 은유 하에 하부은유가 달라짐
- (ii) 외연화
 - a. ST와 같은 개념적 은유에 부가적인 설명 추가
 - b. 은유표현을 은유가 아닌 구체적인 기술로 전환
 - c. 은유를 직유로 전환
 - d. 직유 표현에 부가적인 설명 추가

참고로, 신진원·박기성(2011)의 연구는 본 논문의 집필 마무리 과정에서야 접하게 되었다.

5) 3장의 논의(인용문 포함)는 이승아(2010)를 참고하였다.

(11) 병렬 코퍼스(Parallel Corpus)

어떤 언어로 이루어진 텍스트와 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해 놓은 양자를 하나의 코퍼스에 수집해 놓은 것
a corpus consisting of a set of texts in one language and their translations in another language (Olohan 2004: 24)

(12) 비교 코퍼스(Comparable Corpus)

번역문과 이에 상응하는 동일 언어 비번역문으로 이루어진 코퍼스
a corpus of translations and comparable non-translations in the same language (Olohan 2004: 35)

본 연구에서 구축한 코퍼스는 영어 원천 텍스트(source text, ST)와 한국어 목표 텍스트(target text, TT)로 된 일방향 병렬 코퍼스(unidirectional parallel corpus)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Newsweek*지에 실린 영어 원문 기사 중 일부는 같은 주 혹은 1-3주 뒤에 발행되는 『뉴스위크 한국판』에 한국어 번역 기사가 실리는데, 이 기사들을 모아 영어-한국어 일방향 병렬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Newsweek*지를 선택한 이유는 대표적인 미국 시사 잡지 중의 하나이며, 또한 영어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구하기 쉬워서였다.

주지하다시피, “현대적 의미의 코퍼스는 컴퓨터에 저장하여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형태의 텍스트로 구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권혁승 2008: 2). 그러나 라비오사(Laviosa 2003: 53)에 의하면, 번역학에서는 ‘코퍼스’라는 용어가 전자 코퍼스(electronic corpus)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번역학에서 ‘코퍼스’라는 용어는 코퍼스 언어학에서 쓰이는 것처럼 고정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 일반적으로 특정 기준에 따라 수작업으로 엮어진 상대적으로 작은 텍스트 모음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런 모음집은 특정 번역가나 번역가 [학파]나 작가 시대별 텍스트 등을 포함한다. [필자 강조] (박기성 2009: 66)

In Translation Studies the term ‘corpus’ does not have the same specialized meaning assigned to it by the discipline of corpus linguistics, but it generally refers to a relatively small collection of texts assembled and searched manually according to specified criteria. These collections

include, for example, the texts of a particular translator, school of translators, author, period of time, etc. [emphasis added] (Laviosa 2003: 53)

본 연구에서는 전자잡지가 아닌 종이잡지를 토대로 관련 예들을 수작업으로 찾은 뒤, 코퍼스 크기를 계산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해당 기사를 검색하여 MS-WORD 파일로 저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병렬 코퍼스는 영어 단어 총 26,613개, 한국어 단어 총 20,209개로 이루어졌으며, 총 33편의 기사에서 추출하였다. 이 33편 중 22편은 2010년 6월부터 2010년 7월까지 2개월 동안 발간된 *Newsweek*지 전권에서 택한 것이고, 나머지 11편의 기사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2010년 11월 22일까지 약 1개월간 발간된 *Newsweek*지 중에서 골랐다. 해당 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본 논문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⁶⁾

4. 자료 분석 및 논의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코퍼스 자료 분석 시 추상적 복합 체계에 해당하는 것 중 국가·정부, 기업, 경제의 네 가지 목표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2.1.1절의 (4)에서 제시한 네 가지 추상적 복합 체계 은유 외에 본 연구에서는 필자들이 (13b), (13c), (13g)의 추상적 복합 체계 은유를 더 포함시켰다. 레이코프와 존슨(1980: 52)이 지적하듯이, 개념적 은유는 더 정교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13b), (13c), (13g)를 추가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13a)와 (13b)는 관점에 따라 하나의 은유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본고에서는 보다 정교한 분석을 위해 인간의 신체와 인간이라는 근원 영역을 구분하였다. (13c)를 포함시킨 것은 인간 행동은 동물 행동(HUMAN BEHAVIOR IS ANIMAL BEHAVIOR)이라는 개념적 은유가 있기 때문이다.⁷⁾ 마지막으로, (13g)에 물체

6) 부록에서 번역자의 이름은 가명으로 처리하였다. 총 33편의 기사 중 22편은 번역자 미상이다.

7) 구체적 예는 커베체쉬(Kövecses 2002: 124)에 나오며, 이와 관련하여 존재의 대연쇄 은유(The Great Chain of Being Metaphor)와 관련된 커베체쉬(2002: 126)의 논의도

와 그릇이라는 근원 영역을 추가하였다.⁸⁾

- (13) a.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THE HUMAN BODY
추상적 복합 체계는 인간의 신체
- b.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PERSON
추상적 복합 체계는 인간
- c.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N ANIMAL
추상적 복합 체계는 동물
- d.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PLANT
추상적 복합 체계는 식물
- e.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BUILDING
추상적 복합 체계는 건물
- f.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MACHINE
추상적 복합 체계는 기계
- g.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N OBJECT/
A CONTAINER
추상적 복합 체계는 물체/그릇

코퍼스에서 개념적 은유 표현의 영한 번역 전략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의 다섯 가지 부류와 각각의 예시에 대해서는 4.1절~4.5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표 1> 영한 병렬 코퍼스 분석 결과

분류	예시	토큰	비율
동일한 근원 영역 · 은유적 표현의 직역	4.1절	48	49.5%
동일한 근원 영역 · 은유적 표현의 교체	4.2절	13	13.4%
근원 영역의 대체	4.3절	10	10.3%
은유 생략	4.4절	24	24.7%
은유 추가	4.5절	2	2.1%
합계		97	100%

참고하라.

- 8) 물체와 그릇이라는 근원 영역과 관련해서는 레이코프와 존슨(1980: 25-32) 및 커베체쉬(2002: 34-35)에 나오는 존재론적 은유(ontological metaphor)와 관련된 논의를 참고하라.

4.1 동일한 근원 영역 · 은유적 표현의 직역

이 부류에 속하는 예들은 ST에서 사용된 근원 영역이 TT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ST의 은유적 표현을 번역할 때에도 등가적 표현을 찾아 TT에 그대로 직역한 경우이다. (14)의 ST에서 추상적 개념인 기업은 건물이라는 근원 영역으로 개념화되어 기업의 한 측면(‘망함’)이 건물을 통해 이해되고 있다.⁹⁾ TT에서 역시 ‘기업의 망함’을 ‘건물의 붕괴’로 인지하여 개념화함으로써 ST와 동일한 은유적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14)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BUILDING

ST: ... and just before Lehman Brothers collapsed. (E31, p. 31)

TT: 리먼브러더스의 붕괴가 임박했던 ... (K31, p. 25)

또 다른 예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5)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THE HUMAN BODY

ST: Because no one knows the true health of Europe's banks, the crisis festers. (E18, p. 33)

TT: 유럽 은행들의 진짜 건강상태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위기는 더 더욱 악화된다. (K18, p. 33)

(16)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THE HUMAN BODY

ST: Japan shivers virtually naked as military pressures mount in Eurasia. (E28, p. 6)

TT: 유라시아 전역에 군사적 압력이 높아가면서 일본은 사실상 알몸으로 떨 수밖에 없는 신세다. (K28, p. 30)

(17)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PERSON

ST: ... by funneling resources into more pliable state companies. (E21, p. 8)

9) 4장에 인용된 코퍼스 자료의 출처는 해당 예문의 괄호 안에 밝혔다. 즉, (14)에서 E31은 부록에 정리된 [31]번의 ST를 가리키며, 삽표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해당 예문이 종이잡지에 등장하는 쪽수를 가리킨다. K31은 부록에서 [31]의 TT를 가리킨다.

TT: 좀 더 고분고분한 국영기업을 지원해 ... (K21, p. 10)

(18)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PERSON

ST: Brazil expects blowout growth of 7 to 8 percent this year, making it a current darling of global investors. (E15, p. 29)

TT: 브라질은 올해 7~8%의 이례적인 성장을 기대하면서 세계 투자계의 총아로 떠올랐다. (K15, p. 27)

(19)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CONTAINER

ST: PE [Private-equity] firms are stuffed with very smart people who specialize in turnarounds. (E5, p. 24)

TT: PE[사모펀드] 기업은 똑똑한 기업회생 전문가들로 넉쳐난다. (K5, p. 42)

(20)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N ANIMAL

ST: To do that, it [Russia] must dramatically improve the investment climate by clipping the government's tentacles at every level. (E24, p. 6)

TT: 그러려면 모든 단계에서 정부의 촉수를 거둬들여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K24, p. 22)

그런데 (20)의 번역문에서 ‘정부의 촉수’라는 표현은 한국어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단어의 결합이 아니다. 그래서 번역가는 목표 텍스트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20)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¹⁰⁾

(21) 그러려면 모든 단계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제한하여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21)과 같이 번역하게 되면 ST에 나타난 은유적 효과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은유 생략(4.4절 참고)이라는 번역 전략을 사용한 것이 된다.

10) 복수형 *tentacles*는 ‘the influence or effect that something has on other people or things’라는 뜻이 있다(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4.2 동일한 근원 영역 · 은유적 표현의 교체

이 절에서 살펴볼 예들은 ST의 근원 영역을 TT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되, ST와 정확히 대응되는 표현이 번역어의 문화권에 존재하지 않거나 기타 이유로 인해 ST의 은유적 표현을 직역하지 않고 대신 적당한 표현으로 교체하여 TT에서 사용한 경우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2)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THE HUMAN BODY

ST: Many large companies have stumbled in the Middle Kingdom by overlooking key differences in the local market. (E23, p. 28)

TT: 현지 시장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간과한 탓에 중국시장에서 쓴잔을 들이켠 대기업이 많다. (K23, p. 29)

(22)에서 ST와 TT 모두 인간의 신체라는 동일한 근원 영역을 통해 기업이라는 목표 영역을 이해하고 있지만, 두 텍스트에서 은유적 표현은 달리 나타나고 있다. ST에서는 인간의 신체 부위 중 ‘발’과 연관된 표현인 *stumbled*가 사용되었지만, TT에서는 ‘입’과 관련된 ‘쓴잔을 들이켠’이 사용되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다른 예들은 (23)-(25)와 같다.

(23)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PERSON

ST: at a time when regional competitors like Cambodia and Singapore are trying to steal Thailand’s visitors. (E6, p. 28)

TT: 싱가포르 등 지역 내 관광 경쟁국들이 태국 방문객들을 따돌리려 안간힘을 쓰는 시점이기에 ... (K6, p. 30)

(24)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PERSON

ST: ... the billionaire had gotten too big for the government’s liking. (E21, p. 8)

TT: 그 대기업이 너무 비대해져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 (K21, p. 10)

(25)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N OBJECT/A CONTAINER

ST: These “zombie” banks, stuffed full of bad debt, continue to

operate ... (E18, p. 31)

TT: 부실채권 덩어리인 이들 ‘좀비’ 은행은 계속 영업을 하면서 ...

(K18, p. 33)

(25)에서 ST의 경우 은행이라는 목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그릇이라는 근원 영역을 사용하였고, TT의 경우 은행이라는 목표 영역을 이해하기 위해 물체라는 근원 영역을 사용하였다. 그릇과 물체는 존재론적 은유(각주 8 참고)의 하위 분류에 속하므로 동일한 혹은 유사한 근원 영역으로 볼 수 있다. 한편 ST에서는 ‘부실채권을 잔뜩 떠안고 있는’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반면, TT에서는 ‘부실채권 덩어리’라는 표현으로 교체되었다.¹¹⁾

4.3 근원 영역의 대체

세 번째 부류는 목표 영역이 ST와 TT에서 상이한 근원 영역을 통해 개념화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예를 들 수 있다. (26)에서 기업이라는 목표 영역이 ST에서는 빌딩이라는 근원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고, TT에서는 인간이라는 근원 영역으로 이해되고 있다.

(26)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BUILDING →

A PERSON

ST: Beijing wants to build “national champion” state-owned enterprises ... (E21, p. 8)

TT: 중국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국영기업을 양성하려 한다.

(K21, p. 10)

또 다른 예를 살펴보면 (27)과 같다.¹²⁾ (27)에서 타동사 *hobble*은 ‘to

11) 만약 물체와 그릇을 상이한 근원 영역으로 보면 (25)의 예는 근원 영역의 대체에 속하게 된다.

12) (27)은 기사의 부제로 사용된 표현이다. (27)에서 *how*의 용법은 아래와 같다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i) (old-fashioned or written)

used to say that something happens to a very great degree

loosely fasten two of an animal's legs together, to stop it from running away' 라는 뜻을 지녔다(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즉, SS에서는 경제라는 목표 영역을 동물이라는 근원 영역에 사상하여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TT에서는 경제라는 목표 영역을 인간의 신체라는 근원 영역에 사상하여 이해하고 있다.

(27)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N ANIMAL → THE HUMAN BODY

ST: How gloom is hobbling the economy. (E7, p. 21)

TT: 지나치게 위축된 경제심리가 경제의 발목을 잡을지도 (K7, p. 38)

4.4 은유 생략

네 번째 부류는 ST에서는 추상적 개념이 구체적 근원 영역을 통해 은유적으로 개념화되었으나, TT에서는 그 은유 효과가 상실된 경우이다. 다음 예를 살펴보자.

(28)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THE HUMAN BODY → φ

ST: ... than democratic but aging and declining Japan ... (E28, p. 6)

TT: ... 쇠퇴하는 민주국가 일본보다 ... (K28, p. 30)

(28)의 ST에서는 노화되는 사람, 즉 인간의 신체를 근원 영역으로 하여 추상적 개념인 국가를 은유적으로 개념화하였는데, TT에서는 이러한 은유적 개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8)을 (29)와 같이 번역하게 되면 '동일한 근원 영역 · 은유적 표현의 직역'이라는 첫 번째 전략을 사용한 것이 된다.

(29) ... 노쇠하는 민주국가 일본보다 ...

또 다른 예를 보면, (30)의 ST에서 경제의 한 측면인 디스플레이션은 추상적

How the crowd loved it!

복합 체계는 인간의 신체라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 인체와 연관된 인간의 구체적 체험, 즉 ‘사지의 마비’에 빗대어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TT에서는 근원 영역을 설정하지 않았다.

- (30)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THE HUMAN BODY → ϕ
ST: Japan’s cardinal sins, we’re told, were skimping on economic “stimulus” and permitting paralyzing “deflation” (falling prices). (E33, p. 5)
TT: 흔히 일본이 범한 치명적인 실수는 ‘경기부양’에 너무 인색했고 터무니없는 ‘디플레이션’을 허용한 일이라고 말한다. (K33, p. 22)

(30)은 ‘동일한 근원 영역 · 은유적 표현의 교체’라는 두 번째 전략을 사용하여 다음 (31)과 같이 번역해 볼 수 있다.

- (31) ... 손쓸 도리 없는 ‘디플레이션’을 허용한 ...

(29)와 (31)은 ST에 나타난 은유 효과를 살려서 원문에 보다 충실하다는 점에서 보다 세련된 번역이라고 판단된다.¹³⁾

다음 (32)-(33)도 ST에 나타난 은유적 효과가 TT에서 상실된 경우이다.

- (32)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PLANT → ϕ
ST: ... the world may have another full-blown banking crisis ... (E18, p. 31)
TT: ... 세계에 또 다른 전면적인 금융위기가 찾아올지도 모른다. (K18, p. 33)

- (33)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A MACHINE → ϕ
ST: ... where Chinese manufacturers could operate inside the EU free of quotas and costly tariffs. (E19, p. 8)
TT: 중국 제조업체들은 쿼터와 고액 관세의 제약 없이 EU 내부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 (K19, p. 10)

13) (30)의 ‘터무니없는’은 오역으로 볼 수도 있다.

4.5 은유 추가

ST에서는 은유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데 TT에서는 은유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전체 코퍼스 중 (34)의 예 하나만 찾을 수 있었다.¹⁴⁾ (34)에서 보듯이, ST의 *on the rise*라는 표현을 TT에서 ‘몸집을 불린다’로 번역했는데, 이는 추상적 복합 체계는 인간의 신체라는 은유를 통해 기업을 인간의 신체에 빗댄 것이다.

(34) $\phi \rightarrow$ AN ABSTRACT COMPLEX SYSTEM IS THE HUMAN BODY

ST: As giant U.S. firms downsize and restructure, developing-world multinationals like Tata (the Indian conglomerate), Lenovo (the Chinese computer giant), and Vale (the Brazilian steel firm) are on the rise. (E9, p. 48)

TT: 미국의 대기업들이 감량 경영과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개도국의 대기업들은 몸집을 불린다. 인도의 타타 그룹, 중국의 컴퓨터 제조업체 레보노, 브라질의 철강회사 발레가 대표적이다. (K9, p. 41)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영한 번역된 시사 잡지 텍스트를 분석하여 추상적 복합 체계라는 추상적 개념이 다양한 근원 영역에 사상되는 양상을 인지언어학의 개념적 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번역시 나타나는 개념적 은유의 변화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Newsweek*지에서 발췌한 기사를 바탕으로 ST 26,613 단어, TT 20,209 단어로 이루어진 영한 병렬 코퍼스를 구축하였는데, 코퍼스 분석 결과 개념적 은유 표현의 번역 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다섯 가지 은유 번역 전략은 (i) 동일한 근원 영역 · 은유적 표현의 직역, (ii) 동일한 근원 영역 · 은유적 표현의 교체, (iii) 근원 영역의 대체, (iv) 은유 생략, (v) 은유

14) (34)에서와 같이 한 문장에 은유적 표현이 여러 개 나타날 경우 따로 분류해서 세었다. 따라서 <표 1>에서 ‘은유 추가’에 해당하는 토큰은 두 개이다.

추가이다. 이 중 가장 빈번히 사용된 전략은 첫 번째로서 ST와 TT에서 동일한 근원 영역을 사용하고, ST의 은유적 표현을 TT에 그대로 직역하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가·정부, 기업, 경제의 은유적 개념화를 위해 사용된 근원 영역에 있어서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두 언어의 화자들이 해당 개념들을 유사한 방식으로 이해함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¹⁵⁾ 4.3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ST와는 다른 근원 영역이 TT에 사용된 경우에서조차 대체된 근원 영역들은 모두 ST에서 자주 나타나는 근원 영역이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하다. 국가·정부, 기업, 경제의 은유 개념화 양상에 있어서 영어와 한국어가 이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원 영역을 토대로 은유적 개념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사 잡지 텍스트의 번역에 있어서 텍스트 의미와 더불어 은유적 이미지까지도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음을 뜻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신진원·박기성(2011)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로 된 비번역 시사 잡지를 함께 분석하지 않은 것이다. 『뉴스위크 한국판』에 실린 한국어 번역 기사를 모은 하위 코퍼스와 한국 시사 잡지에 나타난 비번역 기사를 모은 하위 코퍼스를 별도로 만들어 비교 코퍼스를 구축한 뒤 이 두 하위 코퍼스간의 관계를 분석했다더라면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비록 각각 2만 단어가 넘는 하위 코퍼스들로 병렬 코퍼스를 구축하여 얻은 연구 결과이기는 하지만, 제한된 분석 자료로부터 도출된 것이므로, 본 논문에서 얻은 수량화 결과(<표 1> 참고)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영한 번역 교육/실습, 더 나아가서 영어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개념적 은유는 단발성이 아니라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목표 영역과 근원 영역 간에 체계적 대응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념적 은유에 관한 영한 병렬 코퍼스가 구축되면 영어에서 사용된 목표 영역이 한국어에서는 어떠한 근원 영역으로 사상되는지 보다 확실히 알 수 있고 번역가들은 개념적 은유 표현과 관련하여 보다 쉽게 번역 등가어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코퍼스가 번역

15) 이것은 어쩌면 (13)의 개념적 은유들이 보편적 혹은 준보편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언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요구된다.

교육, 번역 실습 및 번역을 통한 외국어 학습 등의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점은 라비오사(2002), 올로한(Olohan 2004) 등이 언급한 바 있다. 시사 잡지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표현의 다섯 가지 번역 전략을 번역가가 숙지하고 있으면 실제 번역에서 이러한 전략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혁승 (2008) 「코퍼스 언어학의 실제 및 응용」, 『응용언어학』 24.3: 1-30.
- 김순영 (2008) 「문학 작품 속의 감정은유 번역—개념적 은유 이론의 관점에서 본 ‘슬픔(哀)’과 ‘화(怒)’의 한영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3: 7-26.
- 노양진, 나익주 옮김 (1995) 『삶으로서의 은유』, 서울: 서광사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 of Chicago P.)
- 박기성 옮김 (2009) 『대조 언어학과 번역학의 코퍼스기반방법론 연구』, 서울: 동인 (Sylviane Granger, Jacques Lerot, and Stephanie Petch-Tyson, eds. 2003. *Corpus-Based Approaches to Contrastive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Rodopi.)
- 박영순 (2000) 『한국어 은유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신진원 · 박기성 (2011) 「경제 텍스트에서의 은유 번역 사례 연구: 개념적 은유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2: 129-155.
- 이승아 (2010) 「영한 병렬 코퍼스에 나타난 영어 수동문의 한국어 번역」, 『영어영문학』 56.5: 871-905.
- 이정화 · 우수정 · 손수진 · 이진희 옮김 (2003) 『은유: 실용입문서』, 서울: 한국문화사. (Zoltán Kövecses. 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P.)
- Altenberg, Bengt and Sylviane Granger (2002) ‘Recent Trends in Cross-Linguistic Lexical Studies’, In Bengt Altenberg and Sylviane Granger (eds.) *Lexis in Contrast: Corpus-Based Approaches*, 3-48,

- Amsterdam: John Benjamins.
- Baker, Mona (1993) 'Corpus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In Mona Baker, Gill Francis and Elena Tognini-Bonelli (eds.) *Text and Technology: In Honour of John Sinclair*, 17-45, Amsterdam: John Benjamins.
- Kövecses, Zoltán (2002)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P.
- Kövecses, Zoltán (2010) *Metaphor: A Practical Introduction*, 2nd edn., New York: Oxford UP.
- Lakoff, George and Mark Johnson (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The U of Chicago P.
- Lakoff, George and Mark Turner (1989) *More than Cool Reason: A Field Guide to Poetic Metaphor*, Chicago: The U of Chicago P.
- Laviosa, Sara (2002)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ory, Findings, Applications*, Amsterdam and Atlanta: Rodopi.
- _____ (2003) 'Corpora and Translations Studies', In Sylviane Granger, Jacques Lerot, and Stephanie Petch-Tyson (eds.) *Corpus-Based Approaches to Contrastive Linguistics and Translation Studies*, 45-54, Amsterdam: Rodopi.
-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2003) 4th edn., Essex: Pearson.
- Olohan, Maeve (2004) *Introducing Corpora in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부록: 논문에 사용된 영한 병렬 코퍼스 자료

번호	ST: <i>Newsweek</i>			TT: 『뉴스위크 한국판』			
	날짜	기사 제목 (쪽수)	단어수	날짜	기사 제목 (쪽수)	단어수	번역자
[1]	June 7, 2010	The Next Wave of the Crisis (p. 4)	730	2010.6.9	금융위기의 진짜 배후는 정치 (p. 20)	532	미상
[2]	June 7, 2010	A Disaster in the Making (p. 20)	754	2010.6.9	친환경 기로에 선 중국 (p. 42)	540	미상
[3]	June 7, 2010	In Defense of Europe (pp. 24-27)	1486	2010.6.9	유럽 공동체의 생명력 (pp. 26-29)	1194	A
[4]	June 14, 2010	The Beijing Blues (p. 6)	778	2010.6.16	중국의 말 못할 고민 (p. 24)	525	미상
[5]	June 14, 2010	Every Dog Has Its Day (pp. 26-29)	795	2010.6.16	사모펀드에도 봄별 드나 (p. 42)	526	미상
[6]	June 14, 2010	The End of Brand Thailand (pp. 26-29)	1518	2010.6.16	아시아의 ‘실낙원’ (pp. 28-31)	1125	미상
[7]	June 21, 2010	The Reluctant Recovery (p. 21)	718	2010.6.23	비관론이 ‘더블 덩’ 부른다 (p. 38)	589	미상
[8]	June 21, 2010	The Politics of Parsimony (pp. 30-31)	875	2010.6.23	허리띠 졸라도 너무 쥘다! (pp. 36-37)	639	B
[9]	June 21, 2010	Executives Wanted (pp. 47-48)	1071	2010.6.23	어디 유능한 관리자 없소? (pp. 40-41)	794	A
[10]	June 28 & July 5, 2010	McCain's Mistake (p. 6)	747	2010.6.30	‘이란 정권 타도’는 오관이다 (p. 20)	513	미상
[11]	June 28 & July 5, 2010	Caution in Kyrgyzstan (p. 8)	487	2010.6.30	키르기스스탄 사태 외면? 러시아의 환골탈태 (p. 10)	303	미상
[12]	June 28 & July 5, 2010	Iran's Guards Tighten Their Grip on Power (p. 9)	193	2010.6.30	이란의 최고권력자는 ‘혁명수비대’ (p. 11)	123	미상
[13]	June 28 & July 5, 2010	Will Minerals Save Afghanistan? (p. 9)	261	2010.6.30	광물자원이 아프가니스탄 구할까 (p. 11)	170	미상
[14]	June 28 & July 5, 2010	Beyond a Boom (p. 24)	497	2010.6.30	세계의 성장엔진이 멈춰서면... (p. 22)	388	미상
[15]	June 28 & July 5, 2010	The Post-China World (pp. 26-29)	1851	2010.6.30	중국의 세계, 그 후 (pp. 24-27)	1285	A

[16]	June 28 & July 5, 2010	Smart, Young, and Broke (pp. 30-31)	993	2010.6.30	화이트칼라 ‘개미족’의 눈물 (pp. 28-29)	745	B
[17]	July 12, 2010	Obama’s CEO Problem (p. 6)	786	2010.7.14	오바마 행정부가 반기업적? (p. 24)	586	미상
[18]	July 12, 2010	Worse than Wall Street (pp. 28-31)	1189	2010.7.14	유럽 금융계가 월스트리트보다 더 한심해! (pp. 30-33)	863	C
[19]	July 19, 2010	Beijing’s Buying up Europe (p. 8)	192	2010.7.21	중국, 이번엔 유럽 사들이기 (p. 10)	147	미상
[20]	July 19, 2010	China for the Chinese (pp. 42-43)	1079	2010.8.11	중국 경제의 중심 이동 (pp. 28-29)	746	B
[21]	July 26, 2010	Coal Gets too Big for Beijing (p. 8)	407	2010.7.28 & 8.4	중국, 국영기업 키우기 다시 나서나 (p. 10)	288	미상
[22]	July 26, 2010	A Fragile Alliance (p. 18)	725	2010.7.28 & 8.4	허약한 동맹 (p. 22)	537	미상
[23]	Oct. 18, 2010	Made for China (pp. 27-28)	1040	2010.10.20	글로벌 명품 브랜드 ‘중국 앞으로’ (p. 28)	735	C
[24]	Oct. 25, 2010	How Russia Lost Its Mojo (p. 6)	753	2010.10.27	러시아 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 (p. 22)	462	미상
[25]	Oct. 25, 2010	Strait Tensions Still Hot (p. 8)	348	2010.10.27	양안 관계 ‘경제 따로, 정치 따로’ (p. 12)	243	미상
[26]	Oct. 25, 2010	The 100 Greenest Companies in America (pp. 29-30)	783	2010.10.27	미국의 100대 녹색기업 (pp. 31-32)	532	미상
[27]	Nov. 1, 2010	Going after Graft (p. 10)	273	2010.11.3	기업 뇌물, 꼼짝 마! (p. 22)	178	미상
[28]	Nov. 8, 2010	Japan Teeters on the Edge (p. 6)	664	2010.11.10	지정학적 불안에 떠는 일본 (p. 30)	483	미상
[29]	Nov. 8, 2010	China is a Rich Country (p. 26)	2273	2010.11.10	중국의 부(富) 얼마나 되기에 (p. 54)	1474	C
[30]	Nov. 15, 2010	Chinese Economic Warfare (p. 19)	731	2010.11.17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심상찮다 (p. 39)	526	미상
[31]	Nov. 15, 2010	Stars of the Recession (pp. 25-27)	1829	2010.11.17	불황기의 승자들 (pp. 25-27)	1217	A

		30-33)					
[32]	Nov. 15, 2010	Room at the Table (pp. 36-37)	1074	2010.11.17	G20이 G7을 대체할까 (pp. 30-31)	694	C
[33]	Nov. 22, 2010	Why Japan Fell ... and What It Teaches Us (p. 5)	713	2010.11.24	일본 경제의 추락에서 배운다 (p. 22)	507	미상
합계			26,613			20,209	

[Abstract]

The Translation of Conceptual Metaphors in News Texts: An Analysis of An English-Korean Parallel Corpus

Lee, Seung-Ah · Bae, Ji-Yeon
(Ewha Womans University)

In cognitive linguistics, the notion of conceptual metaphor refers to the understanding of one conceptual domain (i.e., target domain, which is abstract) in terms of another (i.e., source domain, which is concrete). For instance, in the case of the conceptual metaphor TIME IS MONEY ('x is y'), TIME (x) is the target domain, whereas MONEY (y) is the source domain. This metaphor is reflected in contemporary English by a wide variety of expressions, such as *You're wasting my time* (Lakoff & Johnson 1980: 8).

The present study examines news texts in English to investigate how the target domain ABSTRACT COMPLEX SYSTEMS (e.g., the government, a company, economic systems, etc.; Kövecses 2010: 155) is mapped onto various source domains, such as HUMAN BODY, PLANT, BUILDING, MACHINE, etc. It then analyzes corresponding translated texts in Korean to examine whether any changes occur in the mapping of conceptual metaphors. To this end, a parallel corpus was compiled using a small sample of articles from *Newsweek* magazine (26,613 words) and its published Korean translation (20,209 words). A comparison of the source texts (STs) in English and the corresponding target texts (TTs) in Korean shows that the most prevalent translation strategy turned out to be the "parallel mapping" technique. That is, STs and TTs share identical source domains, and metaphorical expressions of the STs are translated literally in the TTs.

▶ Key Words: metaphor, conceptual metaphor, abstract complex system, news text,
English-Korean parallel corpus

이승아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조교수

seungahlee@ewha.ac.kr

관심분야: 코퍼스기반 번역학, 응용언어학, 대조언어학

배지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과정

baezeeyeon@ewhain.net

관심분야: 번역학, 영어의미론, 텍스트언어학, 대조언어학

논문투고일: 2011년 08월 05일

심사완료일: 2011년 09월 02일

게재확정일: 2011년 09월 09일